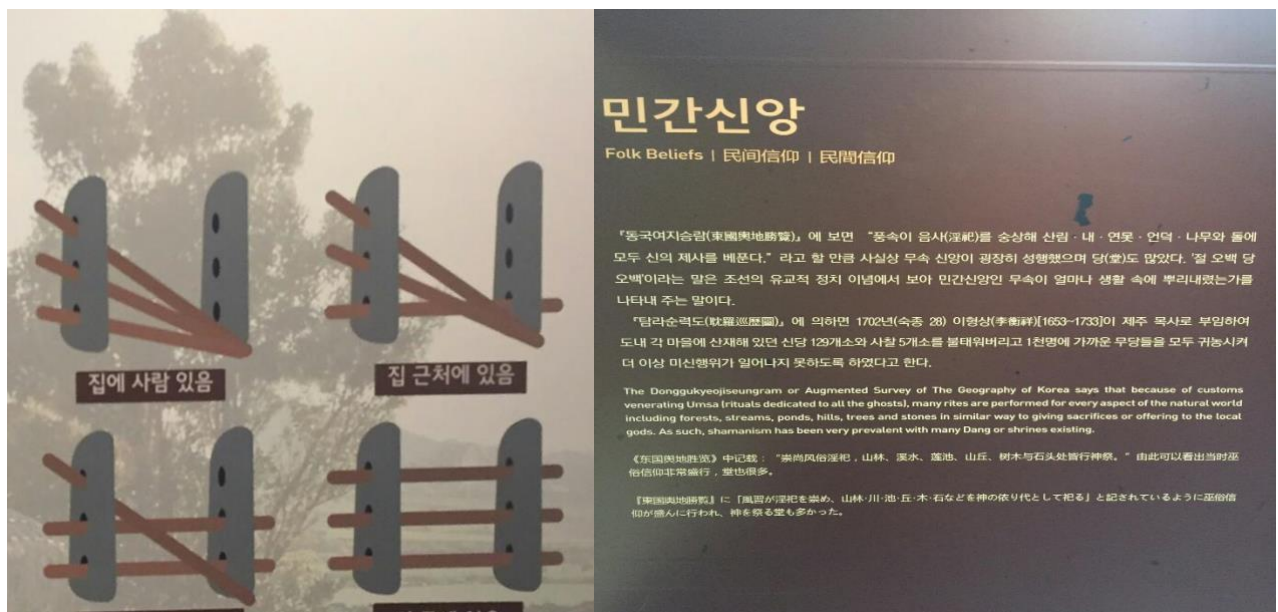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첫번째 시험에다가 시험 끝나면 바로 수학여행을 가게되어서 수학여행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거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제주도 갈 생각에 정말 설렸습니다. 제주도가 당일 버스와 비행기를 타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날씨가 조금 흐렸지만 따뜻했고 버스를 타고 자연사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의 옛날 문화, 지형, 신앙 같이 제주도에 대해서 몰랐던 여러가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유난히 기억나는거는 정낭인데 이걸 티비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제주도 전통가옥 대문의 돌 사이 걸쳐놓은 나무기둥입니다. 티비로는 정낭이 있으면 사람이 없다 라는것만 알고있었는데 사실은 정낭 3개가 가로로 걸쳐있으면 좀 멀리갔다, 정낭 2개면 점심때쯤 온다, 1개는 근처에 있다, 아예 없으면 사람이 있다 와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을때 사람들이 소통하던 방법을 보니 신기했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정말 기대하던 4.3평화공원에 갔습니다. 제주4.3 사건을 기록해둔 곳인데 국어 시간에 순이삼촌을 읽고 더더욱 알고싶고 배우고싶었기에 기다려왔습니다. 전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제주4.3사건 영상을 봤습니다. 빨갱이들의 섬 이라고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막무가내로 죽였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면안되지만 지다가던 부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곳이 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길이었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말합니다“왜 여기에 죽은사람얼굴을 붙여놓은거야? 그러면 보는사람이 기분이 별로잖아” 그러니 아빠가“여기있는사람들을 기억해야지 기억하기위해서 붙여놓은거야” 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 이해가 되어보이지 않았지만 옆에서 들은 저는 크게 공감했던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와서 해줄수있는건 사과하는것과 기억하는거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짹하게 비추던 햇빛아래 커다란 백비를 한참을 봤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그자리에서는 멈추는걸 보면서 많은걸 생각했습니다. 수학여행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혀지지 말아야하는 사건을 좀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다시한번 돌아보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날 소인국테마파크에 갔습니다. 이곳은 세계각국의 랜드마크를 좀 작게 만들어 모아둔곳인데 친구들이랑 사진을찍으면서 가장 재미있게 돌아다녔던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명당은 바로 에펠탑이었습니다. 한번도 프랑스에 가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소인국테마파크의 에펠탑도 멋있었습니다. 사진찍으면 마치 진짜 에펠탑인것처럼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웠던곳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려지고 비가 오기시작해서 제트보트를 타러갔습니다. 제트보트를 기다리는데 조금 지쳤지만 제트보트를 타면서 싹 날려버렸습니다. 바다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면서 시험 스트레스 같은게 잠시나마 잊혀지고 기분 좋았던거 같습니다. 추가로 주상절리를 보여주셨는데 주상절리는 확실히 육지에서 보는게 더 멋있어보이는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상절리를 보러갔는데 생각으로는 주상절리 보는곳만 있겠지 했는데 공원같이 만들어놔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야자수를 정말 많이본 기억이 있는데 진짜 이뻐했습니다.





셋째날 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면 옆에 소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고 오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메이즈랜드는 미로인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자미로를 갔는데 해녀 모양의 미로라고합니다. 사실은 여자미로 끝내고 돌하르방 미로를 가려했는데 미로에 갇혀서 아쉽지만 그냥 왔습니다. 돌하르방 미로는 벽이 돌이여서 색다를 분위기였는데.... 다음에 꼭 가볼려고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곳은 에코랜드 입니다. 가족끼리 제주도를 몇번 와봤는데도 안가본데라 이상했는데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차를 탄 느낌이었습니다. 좋았던거는 기차가 중간중간에 내려주는데 정말 이쁜곳에 내려줍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을정도로 시간가는줄모르고 기차내려서 사진찍고 기차타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빨리 했는데도 다 가보지 못한게 너무 아쉬워서 여긴 진짜 가족들이랑 꼭 올겁니다. 진짜 기차를 내릴때마다 다른 동화속에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짚라인은 정말 인생에 한번뿐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에 강풍이 몰려와서 추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었던거 같습니다. 교감선생님도 타시고 나서 좋은 추억이 될꺼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산굼부리에 다녀왔는데 짙라인을 탄 이후여서 피곤했지만 길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령에서 사진도 좀 찍었는데 안개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레크레이션날! 친구들이 준비해온걸 펼치는 날이었는데 정말 준비한만큼 열심히 하는모습이 멋있었고 그때만큼은 정말 즐겼던 시간이었습니다.

넷째날은 한림공원에 갔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선인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림공원에 선인장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선인장 길이가 어마어마 커서 신기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서 가족과 기숙사 언니들께 줄 선물을 사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 소감문을 쓰니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다시금 기분이 좋아지는거같은데 이번 제주도여행으로 친구들과 가까워지기도하고 시험끝나고 제대로된 힐링을 한거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슬프지만 제주도에서 에너지를 충전한만큼 고등학교생활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